

# ‘반도체 불황’ 제조업 취업 2년여 만에 최대 ↓ ...청년도 ‘암흑기’

통계청 ‘2023년 4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35.4만 ↑ ...증가폭 둔화 전환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둔화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11만명 넘게 축소되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반도체 불황에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년여 만에 최대로 줄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1.3%) 늘었다. 다만 증가 규모는 전월(46만9000명)보다 11만5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올해 1월(41만1000명), 2월(31만2000명)까지 둔화하

다가 3월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4만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8만8000명 감소한 셈이다. 5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5만5000명, 1만5000명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에서 11만6000명, 2만2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46.0%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실업률은 6.4%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시장이 신규보다는 경력직 채용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청년층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7만

1000명·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8000명·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명·7.9%)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1.8%), 건설업(-3만1000명·-1.5%)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7000명(-2.1%)이나 뒷걸음질하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취업자 감소폭은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 불황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에서 감소했으며 전기 장비, 기타 기계 전기 제조업 등도 부진했다. 수출 회복이 안 될 경우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6만4000명(3.0%)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명(-2.1%), 7만6000명(-6.6%)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5000명(4.0%) 증가했지만, 무급가족 종사자는 4만5000명(-4.7%)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7만2000명으로 33만2000명(1.5%)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8만6000명으로 10만4000명(1.8%)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0%로 집계됐다.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9000명(-6.9%) 감소했다. 이는 2008년(79만1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8%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4월 기준으로 최저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6000명(-1.0%)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3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3000명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11만3000명·12.1%), 20대(3

만8000명·10.8%) 등에서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3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7000명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앞으로 내수·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며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의 제조업 경기 부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우려 등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일자리 전담반”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 고용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추진하고 경제활력 회복 노력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 민간 중심 고용창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트랜스베버리지, ‘더 글렌그란트 21년’ 출시

프리미엄 주류 수입 및 유통 전문 기업인 트랜스베버리지는 더 현대에서 진행 중인 ‘더 글렌그란트 팝업 행사’에서 ‘더 글렌그란트 21년’ 고숙성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의 정규 제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 글렌그란트 21년은 최고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불리는 데니스 말콤이 6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 라인업 중 가장 오랜 숙성기간을 거쳐 만든 제품이다.

2016년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은 데니스 말콤은 스카치 위스키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더 글렌그란트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15살부터 더 글렌그란트 증류소와 함께 한 그의 노력 덕분에 더 글렌그란트는 2019년 인터내셔널 위스키 컴퍼티션에서 ‘마스터 디스틸러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

잘 익은 과일의 풍부한 맛을 가진 더 글렌그

란트 21년은 46% ABV(알콜 도수)에 논칠 필터(Non-Chill-Filter)로 출시돼 달콤한 맛과 향, 우아한 피니시를 자랑한다. 웨리 캐스크에서 21년 숙성한 원액을 버번 배럴에서 21년 숙성한 원액을 병입해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

더 글렌그란트 21년은 니트로 즐기기 때 우 적합한 제품이지만 물을 한 방울씩 첨가하는 것도 추천 음용법이다.

이 제품은 리커숍(바틀숍)과 스마트 오더(GS, 데일리샷 등)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트랜스베버리지 관계자는 “더 글렌그란트 애호가들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에 한국이 한 정판과 더 글렌그란트 21년 정식 제품을 최초 출시한 시장 중 하나가 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품격 있는 주류를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GS25 픽업 서비스 반년 만에 245% ↑



고물가에 한 톨이라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배달 대신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한 달간 편의점 GS25 픽업 서비스 매출이 반년 전보다 245%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고객은 168% 증가했다.

슈퍼마켓 GS더프레시 픽업 서비스도 같은 기간 픽업 서비스 매출이 218% 늘었으며, 신규 고객은 1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구간별로 GS25에서 월 3만원 이상 픽업 서비스를 쓰는 이들 비중은 3.3%에서 6.4%, 월 7만원 이상 고객 비중은 5.8%에서 8.4%로 확대됐다.

GS리테일은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선주문 후 점포에 방문해 찾는 식의 소비 패턴이 늘면서 이용 빈도, 매출 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

## “프레딧 72만원 쓰세요”...대명아임레디, 결합상품 출시

상조 브랜드 대명아임레디의 온라인 결합상품 가입몰 ‘버킷마켓’은 hy의 온라인몰 ‘프레딧’ 72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결합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버킷마켓은 대명스테이션의 라이프 케어 상조 브랜드 대명아임레디가 2021년 2월부터 운영 중인 결합상품 다이렉트 가입몰이다. ▲통신비(96만원 지원) ▲주유상품권(96만원 지원) ▲요기요 상품권(72만원 지원) ▲페이즈 앱 포인트(72만원 지원) 등 10여가지 결합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레딧은 hy가 유산권 발효유, 유제품, 신선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전체 회원의 약 60%가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명아임레디 프레딧 결합상품은 월 3만 2000원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2년간 매달 3만원씩 프레딧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한다. 모바일로 전송 받은 상품권을 프레딧 홈페이지에 등록해 쓰면 되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명아임레디는 결합상품 출시를 기념해 7월31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딧 5만원 상품권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hy 온라인몰 ‘프레딧’ 매월 3만원 지원



한다. 기간 안에 상품에 가입하고,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내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상품 가입은 버킷마켓 홈페이지에서 프레딧 결합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

을 하고 원하는 통화 시간대를 선택한 뒤 해피콜로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프레딧 상품권은 납입금을 낸 다음날 모바일로 전송된다.

이슬비기자

## “반도체 수출물량 10% 줄어든다면 국내총생산 0.78% 감소”

KDI,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줄어든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한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GDP는 0.9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반도체 경기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수요를 분석해 보면 올해 2~3분기 중 반도체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교체 주기는 각각 4~5년, 2~3년이다. 컴퓨터 수요는 2015년과 2019년에 저점을 찍은 만큼 올해 초중반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기기 수요도 2020년 3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2023년 2~3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반도체경기 순환에서 반도체 재고가 정점에 이른 후 3~6개월 이후 반도체생산이 저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재고 감소는 2~3분기 중 생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시사한다.

최근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에서 감산을 발표하면서 재고 조정이 진행될 것을 시사했으며, 반도체 수요업체의 재고도 조정되고 있다.

생산-재고 순환이 두드러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고도 정점을 형성한 후 3~6개월 이후 생산 저점이 나타난다. 3월 반도체 재고가 2월 대비 감소하면서 2~3분기 중 생산 저점 가능성을 시사한다.

KDI는 반도체경기 하락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반도체 수출물량과 가격이 외생적으로 각각 10%, 20% 하락한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반도체 수출은 GDP 대비 7.6%다. 반도체 수출물량의 감소는 민간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수출물량이 변하지 않고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국내총소득(GDI) 감소로 민간소비 위축이 일어나면서 GDP가 0.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가격 하락(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로 인해 민간소비도 0.38% 가량 감소한다.

수출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경우 GDP가 0.93% 가량 하락하는 셈이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2.1명으로 전 산업의 10.1명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경기 하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반도체 수출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는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은 63.8%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메모리 비중(3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9.5%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반도체산업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다변화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